

## 디지털 전환시대의 책읽기

: 지식콘텐츠, 챗GPT 그리고 고전\*

한수영\*\*

###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읽기의 외주화
  - 1) 읽기의 대체재로서의 지식콘텐츠
  - 2) 읽기의 대항자로서의 챗GPT
3. 디지털 전환시대 고전 읽기의 방향

### <국문초록>

디지털 전환시대 읽기 매체가 변화하며 읽는다는 것의 의미 역시 달라지고 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읽기의 유토피아에는 읽기를 도와줄 친절한 조력자들이 포진해 있다. 정보를 재구성하여 압축된 형태로 쉽게 전달해주는 지식콘텐츠가 독서의 대체재로 선택된다. 대화를 유창하게 생성할 수 있는 챗GPT는 읽기의 강력한 대항자로 등장하여 읽기의 외주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읽기의 외주화는 매체 변화에 따른 소통의 새로운 양상이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특성을 활용하여 읽기의 범주를 조정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콘텐츠를 흥미를 촉발하고 기본적인 독해와 이해를 돕는 조력자로 활용하여 읽기의 대체재가 아닌 매개재 혹은 보완재로서의 활용해볼 수 있다. 이해, 분석, 확장을 연결하는 읽기의 전 과정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대화자로서 챗GPT를 이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골방의 고독한 읽기를 활동적인 세계로 이끌어 냈으며, 고전은 다양한 매체를 타고 더 쉽고 더 재미있

\* 이 논문은 2022년 8월 18일 한국고전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음.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게 전달된다. 그러나 변화를 수용하고 그 유용성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기술의 향상이 고전 읽기가 계승해온 정서와 태도, 가치를 생성하는 능력을 위축시킨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읽기의 외주화는 고전을 범용지식으로 확산시키는 반면, 전통적인 읽기에 동반되었던 고독한 몰입의 시공간을 위축시킨다. 인간의 고유성을 구성하는 토대가 약화되는 것이다. 고전 읽기는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입체적인 과정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과 기술이 협업하는 새로운 읽기 과정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 디지털 전환시대, 매체 변화, 읽기, 고전, 읽기의 외주화, 지식콘텐츠, 챗GPT, 범용지식, 인간의 고유성

## 1. 들어가는 말

2021년 <국민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sup>1)</sup>에 의하면 성인과 초·중·고 학생 모두 종이책의 독서율은 감소한 반면, 전자책과 오디오북 독서율은 증가하고 있다. 독서를 어렵게 하는 주요한 독서장애요인으로는 일(성인)이나 학업(학생), 그리고 책 이외의 타매체 콘텐츠 이용이라는 답변이 제시되었다. <국민독서실태> 조사는 종이책에서 전자책(2013년부터), 그리고 오디오북(2019년부터)까지 독서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특히 21년도 조사에서는 15가지의 읽기 매체를 제시하여, 독서 범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타진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급변하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읽기 매체가 다양화

1) <국민독서실태조사>는 국민의 종합적인 독서지표를 조사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2년마다 시행된다. 2021년 조사(2020.9~2021.8)에 의하면 전체성인의 종합독서율은 이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연간 종합독서율이란 19세 이상 성인이 1년간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은 비율을 말한다.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한 가지 이상을 읽거나 들은 비율)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1.12., 1~245쪽.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주로 종이책, 전자책, 웹소설, 만화책을 읽는 것을 독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오디오북 종이신문과 잡지, 웹툰, 인터넷신문, 챗북(채팅 형식의 콘텐츠), 소셜 미디어 글 등 자신이 자주 접하는 매체 읽기까지도 독서의 범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소수이지만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나 블로그와 인터넷카페의 글 읽기, 또는 문자 정보 읽기까지도 독서에 포함시키고 있었다.<sup>2)</sup>

이러한 양상이 일시적 유행이나 표면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변화의 배경에는 소통 방식의 대전환이라는 문명사적 변화가 존재한다. 구술문화, 문자문화에서 구텐베르크 인쇄문화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것 이상의, 혁명적인 전환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5G, 초고속서비스, 메타버스 등 초고속 가상세계가 실현되며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읽는다. 책인 아닌 다양한 매체로 읽기는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고전’이라는 장르는 문화 변동의 최전방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실한 순례자인 독자가 고전의 목록이 지시하는 좌표를 따라가는 독서과정은 진리의 왕국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고전의 권위가 살아있는 시대의 풍경이 되었다. “간행 목록표에 붉은 연필로 읽은 것과 읽지 않은 것을 표시했던 삼중당 문고”, “경제개발 몇 개년 식으로 읽어간 삼중당 문고” 라는<sup>3)</sup> 시의 구절처럼 책장에 한 권 한 권 쌓아가며 정전 읽기의 대열

2) <독서의 범위에 대한 의견>

매체	종이책 읽기	전자책 읽기	웹소설 읽기	오디오북 듣기	종이신문 읽기	만화책 보기/읽기	종이잡지 읽기	웹툰 보기/읽기
성인	98.5	77.2	66.5	42.6	37.4	36.2	29.6	25.2
초중고학생	91.2	74.2	45.8	35.0	44.1	57.2	31.3	29.0

  

매체	인터넷신문 읽기	챗북 읽기	웹진 읽기	소셜미디어 글 읽기	인터넷검색 정보읽기	인터넷블로그/카페글 읽기	문자 정보 읽기
성인	23.2	15.9	15.3	9.5	7.5	5.9	2.6
초중고학생	32.2	16.0	16.0	10.0	13.0	10.0	8.5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41쪽.

3) 장정일, <삼중당문고>, 『길안에서 택시 잡기』, 민음사, 1988. 11쪽.

에 참여했던 읽기의 전통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읽기’라는 특별한 기예(arts)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전 읽기의 전통이 약화된다는 것은 결국 책을 읽는다는 것이 구축해온 정서와 태도, 그리고 인식 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망구엘은 독서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대한 책의 첫머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현대에 이르는 ‘책 읽는 사람’의 이미지들을 소개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책 읽는 사람들을 그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자”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그들이 책을 읽으며 보여준 “몸짓, 기술, 독서를 통해 얻는 기쁨, 책임과 지식”을 저자 자신도 책을 읽으며 동일하게 느낀다고 고백한다.<sup>4)</sup>

책 읽기 과정은 고독한 몰입의 ‘몸짓’을 유발하며, 인간의 내면과 책이라는 물질이 내밀하게 대화하는 ‘기술’을 작동시키고, 그 절실한 조우에서 ‘기쁨’과 ‘책임’을 생성하며, 읽는 사람의 내면에 새로운 ‘지식’을 각인시킨다. 따라서 책, 특히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읽기가 축적해온 인간의 정서와 태도 그리고 가치를 생성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유아기부터 전자기기 화면에 몰입해 있는 세대는 어떤 독자가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세대에게 읽기란 무엇일까? 고전 읽기가 만들어내는 시간과 공간의 경험은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고전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먼저 고전 읽기가 당면해 있는 주요한 변화 양상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특히 읽기의 변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매체 변화에 따른 ‘읽기의 외주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읽기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지식콘텐츠’와 그리고 새로운 대화 주체로 등장한 ‘챗GPT’를 검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전 읽기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4) 알베르토 망구엘, 정명직 옮김, 『독서의 역사』, 세종서적, 2010, 12쪽.

## 2. 읽기의 외주화

### 1) 읽기의 대체재로서의 지식콘텐츠

전통적으로 ‘책 읽는 사람’을 그린 그림들이 보여주는 주요한 공통점은 ‘고독’과 ‘몰입’이다. 그림 속에서 그 혹은 그녀는 각자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기대어 혹은 누워서 한 권의 책과 마주하고 있다. 17세기 화가 엘링가의 〈책읽는 여성〉은 전형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sup>5)</sup> 한 여성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다. 신발은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등을 돌린 채 그녀는 책을 읽고 있다. 창으로 햇살이 번져 들어와 책 읽는 사람의 발치를 밝혀준다. 일상의 어떤 간섭도 개입할 틈 없는 완전한 몰입의 순간이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고독한 뒷모습에서 은밀한 엄숙함과 환희가 새어 나온다. 그녀는 이미 골방을 넘어서 특별한 시간에 도달해 있는 듯하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읽기’라는 것이 개인의 내밀하고 고유한 경험을 구성하는 행위로 인식되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빛이 들어오는 골방은 전통적인 고전 읽기의 시간을 공간화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어두운 골방을 밝혀주는 빛처럼, 고전은 특별한 내면의 시공간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호흡으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기에, 읽는 순간 독자는 “삶의 주인공이자 지배자”가 된다고 여겨진 것이다. 그런데 읽기의 새로운 매체들은 이 고유한 시간 공간에 개입하고 이를 해체한다.

디지털 신세대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가는 대신 패드를 들고 이동한다. 그들은 벽과 창문과 책상이 있는 외적으로는 과거와 유사해 보이는 교실에 도착하지만, 그 교실은 거대한 정보의 도서관에 또는 지식 소매상들로 분주한 콘텐츠의 시장으로 활짝 열려있다. 그들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읽기의 유토피아’에서 살고 있다. 이

5) Pieter Janssens Elinga, 〈Woman Reading〉

<https://www.pubhist.com/w46310> 검색(2023.1.6.)

곳에서는 고전과 같은 어렵고 긴 책들이 새로운 콘텐츠로 변신하여 대량으로 생산된다.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넘쳐난다. 원본 텍스트를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좋게 가공한 콘텐츠는 종이책의 대체재로 선호된다.

“지면보다 영상에 익숙한 MZ세대는 지식의 스낵화(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전달하는 것)를 무기로 내세운 지식 유튜브를 도서의 대체재로 인식”하면서 지식, 교양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이 새로운 지식 소매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sup>6)</sup> “너무 바빠서 유튜브도 볼 수 없는 현대인”을 위한 초간단 채널이라는 〈1분만〉(92.2만명), B급 교양 채널이라는 밝히는 〈교양만두〉(75만), 〈지식해적단〉(85.8만) 같은 채널들은 다양한 정보를 1분~20분 정도의 짧은 콘텐츠로 만들어 제공한다.<sup>7)</sup> 이러한 채널들에서 다루는 지식이란 사람이 알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이라 할 만큼 전방위적인 것이다. 일반 지식, 정보, 오락, 호기심을 채워주는 시시콜콜한 잡담까지가 두루 포괄된다.

본격적으로 책을 다루는 채널들도 있는데, “삶의 무기가 되는 지식”을 표방하는 〈책그림〉은 화이트보드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재미와 집중을 유도한다. “한 손에 쥐고 한숨에 보는 문학작품”을 표방하는 〈문학줍줍〉(6.91만)처럼 문학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도 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읽어야 하는 고전을 짧은 시간에 섭렵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자 매력이다. 책 특히 고전을 다루는 채널들은 고전을 왓자지결한 디지털 신세계로 끌어내어 책읽기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고 있다.

읽기의 유토피아에서 고전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매우 가까워졌다.

6) 박선우, 「유튜브가 책을 대체한다? ‘지식소매상’으로 급부상한 유튜버들」, 『시사저널』, 2022. 2.4.

7) 팔호 안은 각 채널의 구독자 수이다. (2023.1.10. 검색)

힘들게 시간을 들여 노력하지 않아도 ‘만두’처럼 한입에 먹을 수 있게 잘 가공된 지식꾸러미를 건내줄 친절한 조력자들이 포진해있다. 누구나 쉽게 어려운 책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 콘텐츠는 고전을 대중화하는 측면이 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고전이 특정한 지식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평준화된 범용지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식콘텐츠 같은 읽기의 대체제에 의존한 대체독서는 전통적인 읽기와는 근원적으로 다르다. 먼저 문해력의 측면에서도 인쇄된 책을 읽는다는 것과 스크린을 읽는다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전통적인 형태의 문해력과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해력 사이에 놓여 있으며, 급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은 읽고 쓰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기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20세기 말의 예측은 지식콘텐츠를 통한 대체읽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해력은 “읽고 쓸 수 있는(being literature)” 최종적인 능력이 아니라,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becoming literature)” “움직이는 표적”으로서 지시적(deictic) 개념이 되었다.<sup>8)</sup> 글을 읽는 것과, 스크린을 읽는 것, 또는 새로운 매체를 읽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이다. 어제의 문해력은 오늘의 문해력과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읽기의 방법과 과정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 읽기의 표준은 ‘훑어보기’라 할 수 있다. 스크린에는 종이책이 페이지마다 간직하고 있는 공간성이나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훑어보기, 건너뛰기, 대충읽기”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현실의 시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경로의 감각이 필요하듯이, 읽기에서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회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크린 읽기

8) Leu, D. J., “Caity’s question: Literacy as deixis on the Internet”, *The Reading Teacher*, vol.51, no.1, September,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997, pp.62~67.

에서는 이렇게 되돌아가서 큰 그림 안에서 연결해내는 능력이 결여된다. “깊이읽기”가 어려워지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 아름다움의 지각이나 통찰, 복잡성을 이해하는 능력도 약화된다.<sup>9)</sup> 디지털 세대는 인지구조 자체가 달라서, 그들의 생각은 하이퍼 텍스트를 따라 도약하거나 병렬적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이동이 순간적으로 진행되어 주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비판적 사고나 성찰에는 취약할 수 있는 위험성도 보여준다.<sup>10)</sup>

종이책을 스크린으로 옮기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잘 정리된 정보 콘텐츠로 재구성했을 때는 이러한 위험성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고전이라는 길고 복잡한 서사, 혼돈스러운 미로를 내재한 책은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 안에서 보기 좋게 정돈되고 압축된다. 짧은 시간에 집중력 있게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읽기의 역동성은 축소되고, 수동적으로 스크린을 보는 것이 주가 된다. 전통적인 고전 읽기가 유발하는 특별한 정동의 몸짓, 고유한 경로나 회상의 과정을 동반해야 하는 기술, 여기에서 생성되는 기쁨과 책임, 미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지식의 창출 같은 과정이만 들어질 여지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읽기의 외주화가 반복될수록, 읽는 사람의 인지는 외부 콘텐츠의 호흡에 그 맞추어질 것이다. “불안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마냥, 갈수록 작아지는 스크린 위의 읽기가 요구하는 부지불식간에 좁아드는 규범”<sup>11)</sup>에 맞추게 될 것이다. 읽기의 유토피아에서 직접 읽기를 대신할 대체독서가 증가할수록, 읽는 사람의 정서나 경험도 외부플랫폼에 의탁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세대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가 되기 직전의 순간”에 있다<sup>12)</sup>는

9) 매리언 울프, 전병근 옮김, 『다시, 책으로』, 어크로스, 2021, 125~136쪽.

10) Prensky, M., 2001b,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2: Do They Really Think Differently?” *On the Horizon*, vol.9, no.6, December, MCB University Press, pp.1~5.

11) 매리언 울프(2021), 앞의 책, 138쪽.

12) 매리언 울프(2021), 앞의 책, 166쪽.



말은 ‘새로운 읽기는 새로운 우리를 만든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2) 읽기의 대행자로서 챗GPT

읽기의 유토피아에 새로 등장한 강력한 조력자는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생성 AI 챗봇이다. 최근 등장한 OpenAI의 챗GPT는 자연어를 처리하는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에 비하여, 탁월한 언어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13)</sup> 챗GPT는 프로그래밍 기능도 탁월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언어처리 능력인 빈칸 채우기, 문장, 문단 완성하기, 요약, 일반 지식에 대한 답변, 언어 간 번역은 물론이고 텍스트 이해, 추론, 적용, 텍스트 통합, 문법교정, 추상적 개념 생성, 단편소설 생성 및 비평까지 다양한 언어 모델을 생성해낼 수 있다.<sup>14)</sup>

챗GPT는 에세이 작성하는 기술과 유용성으로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교수, 프로그래머, 저널리스트는 조만간 실직할 위험이 있다<sup>15)</sup>는 예측이 나올 만큼 능력이 높게 평가되기도 했다. 이 AI는 인간이 작성한 기사와 구별하기 어려운 뉴스 기사 샘플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인간 대학생이 작성

13) Chat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미국의 인공지능연구소인 Open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GPT3.5를 기반으로 하여, 대화에 최적화된 언어모델인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프로토타입으로 출시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튜링NGL 보다 10배 이상 많은 1750억 개의 매개변수(parameters)가 있는 자동회귀언어모델(autoregressive language model)로 언어처리능력이 뛰어나다. 딥러닝을 이용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에 육박하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인간대화자를 모방하는 것 이외에, 프로그램작성, 디버깅, 작곡, 글쓰기, 시험보기 등 다양한 작업을 한다. 와츠앱이나 지메일,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과 연동하여 실생활에도 다채롭게 활용가능하다.

14) Tom B. Brown et al.,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arXiv, Cornell university, 2020.6.22. pp.10~29. <https://arxiv.org/abs/2005.14165>

15) Alex Hern, “AI bot ChatGPT stuns academics with essay-writing skills and usability”, *THE Guardian*, 2022,12,4.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2/dec/04/ai-bot-chatgpt-stuns-academics-with-essay-writing-skills-and-usability>

한 것처럼 학부시험의 답안을 생성해내기도 한다. 딥러닝의 한계에 육박했다는 챗GPT는 기존의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많은 약 45TB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했다.<sup>16)</sup>

이 논문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 정보 검색이 아니라 대화에 최적화된 모델이라는 사실이다. 챗GPT가 방대한 분량을 학습하여 고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 상대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읽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읽기는 독해와 이해를 기반으로 분석과 주제의 확장까지를 연결해내는 광범위한 인지 과정을 동반한다. 교과과정에서 ‘독서와 토론’이 하나의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읽기가 본질적으로 대화의 과정이며, 열린 토론을 통해서 인지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읽는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분석하여, 생각을 조정하며 인식의 폭을 넓혀가고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찰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는 이러한 읽기의 전 과정을 촉발하고 심화하는 매개로서 중요하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챗봇은 책을 읽는 때 순간에 개입하여, 읽는 사람의 질문에 답하며 어려운 고전을 대신 읽어주고 요약해주고 분석해줄 수 있다. 챗GPT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의 포커스에 맞춘 대답을 생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대화를 수행할 수 있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재생성을 시키면, 챗GPT는 약간 다른 각도의 대답을 만들어낸다. 구글 검색이나 지식콘텐츠를 참조하는 것과 다른 점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특화된 답변이, 일정한 구성을 갖춘 글의 형식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속 대화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보강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정보의 조각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로 직조된 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16) 8년간에 걸친 웹검색기록(common crawling) 웹텍스트(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텍스트), 디지털화된 책, 위키피디아를 섭렵하며 언어모델을 학습하고 스스로 훈련했다. Tom B. Brown, et al, p.9.

챗GPT와의 대화에 의존하여 읽기 쓰기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챗GPT에 대한 경계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전 읽기에서 대화자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하여, 필자는 챗GPT와 대화를 시도했다.<sup>17)</sup>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고전읽기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과제 질문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진행했다. 읽기의 과정에는 텍스트의 독해, 이해, 분석, 확장의 단계가 연속되어 있기에, 질문 역시 ‘요약 - 독해 - 주제 분석 - 다른 범주로 확장’ 이렇게 4개의 영역에서 제시하였다. 질문에 대하여 챗GPT가 대답을 생성하면, 그 대답을 근거로 새로운 질문을 제시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했다. 필자가 던졌던 질문(채팅 과정에서 형성된 부수적인 질문은 제외)은 다음과 같다.

목표	질문내용
요약	①초등학교 2학년 수준 요약 ②대학생 수준 요약 ③주요문장을 활용한 요약
이해	①노인이 바다로 나간 이유 ②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고르고, 그 의미를 설명
분석	① 산티아고는 승리자인가 패배자인가 ② 마지막 장면에서 소년이 잡은 노인의 손을 보고 운 이유
확장	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소설의 의미는 무엇일까 ② 소설을 짧게 요약해주는 유튜브 콘텐츠는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 ③ <노인과 바다>와 주제가 비슷한 영화를 찾아라 ④ 마놀린은 어떤 어부가 되었을까 ④ 소년이 노인과 함께 바다로 나갔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노인과 바다> 소설을 쓰라

챗GPT는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중간- 끝의 구성을 갖춘 답변을 생성해냈다. 배후에서 복잡한 지식의 연결망이 작동하고 있겠으나, 제시된 글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일반적인 검색 프로그램에서 정보의 출처가 명기되거나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차이점이다.

17) <https://openai.com/blog/chatgpt/> 피드백 기간에 무료로 제시된 버전을 사용했다. 이 논문에 사용한 제시문은 영어로 질문을 하고, 챗GPT가 영어로 대답한 것을 한국어로 자동번역한 것이다. 자동번역된 문장은 어색하지만, 수정 없이 그대로 제시했다. (2023.1.10~11일 채팅한 자료임)

따라서 이 답변의 저변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작동하고 있는지,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분쟁의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챗GPT는 요약(학습자 레벨에 따른 요약), 텍스트의 이해, 그리고 주제 분석, 그리고 주제를 다른 학문영역으로 이어내는 것까지.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단 몇 초 만에 답변을 만들어냈다.

대화의 한 예를 제시하면, “마지막 장면에서 소년이 잠든 노인의 손을 보고 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이 생성되었다.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에서 소년 마놀린은 산티아고의 용기, 결단력, 산티아고가 가진 사랑에 감동하여 잠자는 노인의 손을 보며 울고 있습니다. 소설 전체에서 마놀린은 산티아고의 동반자였으며 그의 여정을 통해 그와 함께 그를 격려하고 행운을 빕니다. 그는 산티아고를 멘토이자 아버지의 모습으로 봅니다.

마놀린은 또한 산티아고의 투쟁을 보았기 때문에 슬프고, 산티아고가 산티아고의 패배를 상징하는 거대한 청새치의 골격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산티아고의 실망과 산티아고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느끼고 울게 만듭니다.

또한 마놀린의 외침은 자신의 감정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동반자, 멘토, 아버지의 모습을 잃었고, 한 시대의 종말, 우정의 종말, 삶의 방식의 종말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그는 산티아고의 여행이 끝나기를 위해 울고 있지만, 성인이 되기 직전인 자신의 어린 시절의 끝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마놀린은 산티아고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동되어 울고, 산티아고의 고통과 실망을 느끼고, 시대의 종말과 우정의 끝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사랑에 감동했으며, 노인이 겪은 고통의 무게에 공감했다는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답으로서 학생들의 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3단락의 “한 시대의 종말, 우정의 종말, 삶의 방식의 종말”이라는 부분은 특별하다고 생각된다.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노

인의 빈손에서 소년이 느꼈을 좀 더 복잡하고 성숙한 감정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빛나지만, 결국 상처투성이의 빈손이 되는 것까지를 감내하는 것이 삶의 무겁고 절절한 의미라는 것을 소년이 직관하고 있다는 것을 챗GPT는 지적하고 있다. 텍스트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다른 맥락으로 확장하는 대답을 함으로써, 챗GPT가 읽기의 대화자로서 역활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챗GPT가 답변의 3단락에서 쓴 말을 인용해 “삶의 방식의 종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물었다.

삶의 방식의 끝은 사람이나 집단을 인도하고 정의한 특정 신념, 가치, 관습 및 전통의 끝을 의미합니다. 특정 기간의 끝 또는 어린 시절의 끝이나 경력의 끝과 같은 삶의 특정 단계의 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대로 전해 내려온 특정 생활 방식이나 문화의 끝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맥락에서 삶의 방식의 끝은 어부로서의 산티아고 여행의 끝과 성인이 되려는 마놀린의 어린 시절의 끝을 의미합니다. 산티아고는 평생 동안 어부였으며 바다는 그의 삶의 방식이었지만 나이와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어부로서의 경력이 끝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놀린은 마을에서 자랐고 산티아고와 함께 낚시를 배웠고 산티아고의 삶의 방식을 공유했지만 이제 산티아고는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고 마놀린은 곧 성인이 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대의 종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방식의 끝은 익숙한 습관, 신념 및 전통을 버리는 것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감정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세대교체의 의미를 지적하며, 소설을 통해 인간 고유의 경험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을 심화시켰다는 장점이 있는 대답이었다. 아마도 교실에서 학생이 이 답변을 제출했다면 필자는 ‘창의적 측면이 있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글인데, 문장을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두 사람이 함께 바다에 나가는 새로운 소설을 써보라는 주문이었는데, 이리저리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2개 제시하더니, 마지막에 챗GPT는 이렇게 침언을 했다.

“새로운 소설을 쓰는 것이 많은 시간과 연구, 창의성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이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AI이고 소설을 쓸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전체 채팅 자료는 아래 이미지 참조)

수영

What would happen if the boy went out on a boat with the old man?  
Write a new novel, old man and the sea.



It is difficult to predict exactly what would happen if the boy, Manolin, went out on a boat with the old man, Santiago, in a new novel, "Old Man and the Sea." However, it is likely that the story would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haracters and the lessons that Manolin would learn from Santiago.



One possible scenario is that Manolin would accompany Santiago on his journey to catch the giant marlin. The novel would show how Manolin, despite his youth and inexperience, helps Santiago to catch the fish. Together, they would face the challenges of the sea, and Manolin would learn about the importance of perseverance, hard work, and the human spirit's ability to endure.

Another possible scenario is that Santiago would take Manolin fishing, and teach him the ways of the sea and the art of fishing. The novel would show how Manolin, under Santiago's guidance, becomes a skilled fisherman and how he learns to appreciate the sea and the natural cycle of life and death.

Regardless of the scenario, it is likely that the new novel would explore the themes of friendship, mentorship, and the passing of knowledge and traditio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It would also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man and the sea and how the sea can shape one's life.

It's worth noting that writing a new novel is a complex task that requires a lot of time, research and creativity, I am an AI and I'm not able to write a novel.

소설을 쓰라는 요구에 챗GPT가 자기 정체성은 확인시켜주는 점은 흥미롭다. 인공지능은 대량의 학습량에 기반하여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을 한다. 물론 자신만의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원하는 범주에 맞추어 지식을 재구성한다. 또한 소설쓰기 같은 허구를 구성하라는 요구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질문은 거부한다.<sup>18)</sup> 웹사이트의 방대한 텍스트를 샘플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챗GPT 안에는 무수한 저자들이 숨어있을 것이다. 챗GPT와 고전에 대하여 대화한다는 것은 무수한 저자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맥락으로 가지런히 정돈한 단성화된 화자와 대화하는 것과 같다. 질문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합하여, 하나의 맥락으로 재구성하여 대답을 생성함으로써 마치 실제 사람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 같은 언어 유창성을 구사하는 것이 챗GPT의 장점이자 매력이다.

문제는 목소리나 얼굴, 이름과 같은 실체가 없기에 사용자가 GPT와의 대화를 자기화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질문과 대답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 대화를 마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읽기 과정으로 느낄 수 있다. 답변자는 성실하게 답변만 할 뿐이고 답변의 주체로서의 어떤 권리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화자와 답변자의 거리가 유지되기가 어렵기에, 이 대화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문자답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오용할 여지가 발생하기 쉽다. 이런 경우 챗GPT는 읽기를 도와주는 대화 상대자가 아니라, 자신

18)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2015년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일어날 일을 설명하라고 하면, 챗GPT는 답변을 생성하면서도 그 답변이 허구라는 것을 경고한다. 또는 자동차 훔치기에 대한 조연을 요구하면 심각한 범죄라고 말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Alex hern(2022), 앞의 글.

을 대신해 읽어주고 생각해주는 또 다른 자아, 읽기의 대행자가 된다.

챗GPT는 읽기의 강력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이며, 지식콘텐츠를 통한 ‘대체읽기’를 넘어서 ‘대신 읽기’ ‘대신 생각하기’를 의탁하게 하는 강력한 유혹자이기도 하다.

### 3. 디지털 전환시대 고전 읽기의 방향

기술은 힘든 일을 쉽게 만들어주어 우리 삶을 향상시킨다. 현대세계의 풍요는 기술의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인터넷 초기에 신문명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하여, 인터넷은 알파벳, 파피루스 종이, 필사본, 활자인쇄물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기술의 흐름이기에 이 신기술을 인류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했던 길스터의 주장은<sup>19)</sup>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메타버스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컴퓨터-인터넷-스마트폰 혁명의 연장선에서 전개되는 디지털 신대륙의 확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sup>20)</sup> 주장도 변화의 거대한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라는 특별한 종의 진화 여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흐름이다. 인간은 변화와 편리한 삶에 대한 욕망을 멈추기 어려울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읽기의 변화 또한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위에 있다. 디지털 기술은 골방의 고독한 읽기를 활동적인 세계로 이끌어 냈으며, 고전은 다양한 매체를 타고 더 쉽고 더 재미있게 전달된다. 지식콘텐츠는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잘 다듬어서 편리하게 제공해준다. 고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리적 거리감도 점차 희미해질 것이다. 인쇄매체에 실려있는 원본 텍스트

19) 폴 길스터, 김정래 역, 『디지털 리터러시』, 해냄, 1997, 38~41쪽.

20) 최재봉, 『최재봉의 메타버스 이야기』, 북인어박스, 2022, 18쪽.



와는 다르지만, 고전은 일종의 범용지식으로서 공유되고 있다. 챗GPT도 점차 진화하여 아이언맨의 AI 비서인 자비스처럼 충실하고도 유능한 읽기의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읽기의 외주화’는 매체 변화에 따른 소통의 새로운 양상이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특성을 활용하여 읽기의 범주를 조정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전에 대한 지식콘텐츠는 일종의 범용지식을 전달한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준다는 측면, 즉 지식콘텐츠가 고전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고 기본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지식콘텐츠를 읽기의 시작단계에서 흥미를 촉발하고 기본적인 독해와 이해를 돕는 조력자로 활용함으로써, 읽기의 대체제가 아닌 읽기의 매개체 혹은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챗GPT를 고전 읽기에 활용하는 방안은 앞으로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탐구되어야 한다. 최근 의학교육과 임상진단에서 챗봇을 활용할 가능성을 타진하는 논문이 게시되었는데, 챗GPT가 논문의 공동저자로 학자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챗GPT는 특별한 학습 과정 없이도 미국의 의료면허시험(USMLE)에 합격선을 통과했으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공동으로 집필했다.<sup>21)</sup>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챗GPT와 같은 생성AI는 이미 독립적인 인격처럼 인간과의 공동작업에 개입하고 있다. 경쟁사의 새로운 모델들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런 기술

21) 의학, 건강 분야의 전자저널 논문의 4번째 공동저자로 ChatGPT 이름이 올랐다. 저자 소속은 (OpenAI, Inc:(San Francisco, CA)로 되어 있으며, 데이터를 처리하고 원고의 여러 부분을 작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Tiffany H. Kung, Morgan Cheatham, **ChatGPT**, Arielle Medenilla, Czarina Sillos, Lorie De Leon, Camille Elepaño, Maria Madriaga, Rimel Aggabao, Giezel Diaz-Candido, James Maningo, Victor Tseng, “Performance of ChatGPT on USMLE: Potential for AI-Assisted Medical Education Using Large Language Models”, *MedRxiv*, 2022.12.19. p.18. <https://www.medrxiv.org/content/10.1101/2022.12.19.22283643v2>

이 없는 것처럼 괄호에 넣은 채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이를 대화의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읽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방향이 연구되어야 한다. 지식콘텐츠가 흥미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챗GPT는 이해와 분석, 확장에 이르는 대화 상대로 활용 가능하다. 읽기에서 질문을 생성하는 학습을 강화하여, 챗봇과의 대화를 수행하면서 이해, 분석, 확장을 연결하는 읽기 과정을 구성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읽기 과정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대화자로서 챗GPT를 이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인류는 ‘외주화’의 과정을 통해 물리적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며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돌도끼는 손의 기능을 외주화한 것이고, 바퀴는 다리의 기능을 외주화 것이다. 읽기의 외주화도 새로운 기술 매체에 의탁하여 더 쉽게 더 빠르게 읽기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외주화 과정이 주체의 본질적 영역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읽기의 외주화는 다른 것들과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다.

20세기의 작가들은 과학기술의 미래에는 인간성의 보루인 책을 부정하거나 파괴되는 비극적인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신세계』(1934)에서 셰익스피어로 대표되는 고전의 유산은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신세계의 통치자는 “우리 문명은 기계와 의학과 행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책들을 금고 속에 처박아 놓은 것이죠”<sup>22)</sup> 라고 말하며 자유와 불안정과 고통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폐기한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1953)에서도 책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요소이기에 발견 즉시 불태워진다. “월요일에는 밀레이를, 수요일에는 휘트먼을, 금요일에는 포크너를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우자. 그리고 그 재도 다시 태우자”<sup>23)</sup>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사회에서 사람들은

22) 올더스 헉슬리, 이성규 외 옮김, 『멋진 신세계』, 범우사, 1998, 280쪽.

23) 레이 브래드버리, 박상준 옮김, 『화씨 451』, 황금가지, 2011, 22쪽.

책을 지키는 최후의 방편을 생각해낸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한 권의 책을 통째로 기억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플라톤, 아우렐리우스, 조나단 스위프트, 다윈, 쇼펜하우어 등을 자처하며, 각자는 한 권의 책을 기억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한 사람의 삶이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고전은 공존하기 어렵다’는 상상의 바탕에는 기술의 원리와 인간성이 근본적으로 대립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기술은 사회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전이라는 유산을 파괴하거나 은폐하는데 주력할 것이기에, 고전을 보존하는 일은 타버린 잣데미에서 불사조의 부활을 기다리듯이 인간성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이어나가는 일이라는 논리이다.<sup>24)</sup>

혁슬리와 브래드버리의 소설이 이처럼 완고하면서도 보수적으로 과학 기술과 고전의 충돌을 부각시켰던 것은 기술 변화의 흐름에서도 변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전이 잘 정리된 정보로만 통용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챗봇과의 대화에 의존하여 소통하는 세상은 두 소설가가 경계했던 인간의 고유성이 사라진 세계를 연상시킨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기계가 인류의 지성을 뛰어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 같은 인간 고유의 영역을 기술에 의존하며, 인간이 자발적으로 기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더욱 두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술이 주는 긍정적인 가치, 지식콘텐츠가 주는 즐거움, 챗GPT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기술의 향상이 내면의 “궁핍함”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내비게이션 장치에 의존해서 운전할 때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필요 없다. 기계가 지시하는 대로만 정확하게 수행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의미심장한 “구별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며, “길

24) 레이 브래드버리(2011), 위의 책, 249쪽.

잡이 건물이나 도로 표지판”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 스스로 내비게이션의 자동화 장치가 되는 경험은 “태양과 별들의 위치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한 내비게이션의 본래 뜻인 항해라는 고귀한 기술과는 동떨어져 있다.<sup>25)</sup>

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독하게 뒤돌아 앉아 몰입하여 읽는 시간이 사라져가고 읽기를 외부 기술에 의탁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단조로워진다”는 징표이다.<sup>26)</sup> 외부의 자극이 내비게이션처럼 개입하면서 고전과 읽는 사람 사이에서 탄생하는 특별한 경험,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에 대한 고유한 기억과 경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실은 인간 고유의 밀도 있는 정서와 창조적 힘을 지탱해 줄 원재료가 부실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의 역사가 축적해온 특별한 기예로서의 읽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읽기는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화 장치와 유사하게 된다.

읽기의 외주화는 고전을 범용지식으로 확산시키는 반면, 전통적인 읽기에 동반되었던 고독한 몰입의 시공간을 위축시킨다. 인간의 고유성을 구성하는 토대가 약화되는 것이다. 고전 읽기는 전통적으로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입체적인 과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과 기술이 협업하는 새로운 읽기 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디지털 전환시대 책읽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5) 휴버트 트레이버스, 손켈리 지음, 김동규 옮김, 『모든 것은 빛난다』, 사월의 책, 2013, 365~366쪽.

26) 휴버트 트레이버스, 손켈리 지음, 김동규 옮김(2013), 위의 책, 364쪽.

참고문헌

박선우, 「유튜브가 책을 대체한다? ‘지식소매상’으로 급부상한 유튜버들」, 『시사저널』, 2022. 2.4.

장정일, 『길안에서 택시 잡기』, 민음사, 1988, 5~140쪽.

최재봉, 『최재봉의 메타버스 이야기』, 북인어박스, 2022, 13~312쪽.

레이 브래드버리, 박상준 옮김, 『화씨 451』, 황금가지, 2011, 15~279쪽.

매리언 울프, 전병근 옮김, 『다시, 책으로』, 어크로스, 2021, 12~359쪽.

알베르토 망구엘, 정명직 옮김, 『독서의 역사』, 세종서적, 2010, 7~450쪽.

올더스 헉슬리 이성규 외 옮김, 『멋진신세계』, 범우사, 1998. 5~438쪽

폴 길스터, 김정래 역, 『디지털 리터러시』, 해냄, 1997, 5~310쪽.

휴버트 트레이버스, 손켈리 지음, 김동규 옮김, 『모든 것은 빛난다』, 사월의 책, 2013, 11~423쪽

Alex Hern, “AI bot ChatGPT stuns academics with essay-writing skills and usability”, *THE Guardian*, 2022,12,4.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2/dec/04/ai-bot-chatgpt-stuns-academics-with-essay-writing-skills-and-usability>

Leu, D. J., “Caity’s question: Literacy as deixis on the Internet”, *The Reading Teacher*, vol.51, no.1, September,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997, pp.62~67.

Tiffany H. Kung, Morgan Cheatham, ChatGPT, Arielle Medenilla, Czarina Sillos, Lorie De Leon, Camille Elepaño, Maria Madriaga, Rimel Aggabao, Giezel Diaz-Candido, James Maningo, Victor Tseng, “Performance of ChatGPT on USMLE: Potential for AI-Assisted Medical Education Using Large Language Models”, *MedRxiv*, 2022.12.19. p.18.  
<https://www.medrxiv.org/content/10.1101/2022.12.19.22283643v2>

Tom B. Brown et al.,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arXiv, Cornell university, 2020.6.22. pp.10~29  
<https://arxiv.org/abs/2005.14165>

〈자료〉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1.12., 1~490쪽.

ChatGPT 사이트, <https://openai.com/blog/chatgpt/>

Pieter Janssens Elinga, 〈Woman Reading〉

<https://www.pubhist.com/w46310> 검색(2023.1.6.)

## ABSTRACT

Reading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 Knowledge Content, ChatGPT, and Classics

Han, Soo-young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medium of reading is expanding and accordingly, the meaning of reading is changing. In the utopia of reading, where we can find anything at any time, there are friendly helpers to help us read. Knowledge content that reconstructs information and delivers it easily in a shortened form emerges as a substitute for classic reading. Especially, AI ChatGPT replaces reading, thinking, and judging, and outsourcing of reading prevails.

Outsourcing of reading is a new aspect of communication according to media chan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diagnose it and use its characteristics to adjust or expand the category of reading. Knowledge content can be used as an aid to stimulate interest and help basic reading comprehension and understanding, and can be used as a medium or supplement rather than a substitute for reading. A plan to use ChatGPT as a new conversationalist that can activate the entire process of reading that connects understanding, analysis, and expansion must also be devised in detail.

Digital technology has brought lonely reading in the closet to the active world, and classics are delivered more easily and more fun through various media. However, apart from embracing change and acknowledging its usefulness,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diminishes the ability to create emotions, attitudes, and values inherited from reading classics. Reading the classics was a three-dimensional process for humans to understand themselves and the world. Based on this, a new reading process in which humans and technology collaborate should be constructed.

**Key Words**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knowledge content, ChatGPT, Classics, outsourcing of reading, general knowledge, human uniqueness

논문투고일: 2023.01.24.

심사완료일: 2023.02.05.

게재확정일: 2023.02.08.